(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7 (2025. 10.), 68-89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5.10.57.68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물 구유와 머리카락

— 아가 7:5[6]의 רהטים에 대한 중의적 해석 —[1)]

김예슬*

1. 서론

술람밋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한 여자[2)]의 아름다움을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은유로 묘사하는 본문인 아가 6:13-7:5[7:1-6]은, 아가 7:5[6], "רֹאשֵׁךְ עָלַיִךְ כַּכַּרְמֶל וְדַלַּת רֹאשֵׁךְ כָּאַרְגָּמָן מֶלֶךְ אָסוּר בָּרְהָטִים(머리는 갈멜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개역개정』])"을 통해 마무리된다.[3)] 여기에서 쓰인 רהטים이라는 단어는 주로 '머리카락'으로 이해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같은 단어로 인식돼 왔다.[4)] 히브리

* University of Fri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함. 현재 연세대학교 구약학 강사. yeseul.ys.kim@gmail.com.

1) 이 논문은 곧 출간될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세 단락에 걸쳐 제시한 아이디어(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A Semiotic Approach to Image-Text Relations in Interpretations of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OBO [Leuven: Peeters, forthcoming], 245-246)를 보완 및 확대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2) 본고에서는 유연희, "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번역어 찾기 —", 「성경원문연구」 50 (2022. 10.), 45를 참조해 '여인'이라는 표현은 배제하고 '여자' 혹은 '여성'으로 지칭함을 밝힌다. 또한 שׁוּלַמִּית은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별칭임을 감안하여 '술람밋'이라 음역하였다.

3) 이 본문의 단락 나눔에 대해서는 본고의 "5. 아가 7:5[6]의 문학적 맥락" 의 논의를 참조하라.

4) G.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역 (서울: 가톨릭, 2014), 596; T. 롱맨 III, 『아가』, 권대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36-237; J. C. Exum, *Song of Song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214;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0), 183, 186; M. H. Pop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7), 630.

어 רהט는 아가서의 이 부분을 제외하면 히브리어 성서에서 총 세 번 쓰였다. 두 번은 야곱이 양 떼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창 30:38, 41), 한 번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양 떼의 구유에 물을 채울 때(출 2:16) 사용되었다. 즉 아가 7:5[6]을 제외하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서에서 일관적으로 '물 구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아가 7:5[6]의 רהט를 '구유'라고 해석하기에는 무언가 어색하다. 게다가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 앞에 이미 언급된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현대 번역본들이나 주석가들은 대부분 5[6]상반절의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어원적, 혹은 용례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가 7:5[6]에 쓰인 רהטים을 '머리카락'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언어학적 및 고대 근동 도상학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중의적으로 '물 구유'의 의미 또한 가리킬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 רהטים에 대한 번역 및 고대, 중세의 해석

아가 7:5[6]의 רהטים은 주로 "머리카락"으로 번역되곤 한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머리카락"으로 번역하며,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머리채"로 번역한다. 『새한글』은 "땋은 머리"로 번역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서는 tresses(긴 머리)로 주로 번역이 되는 가운데(NIV, NAS, NRS, ESV, JPS), KJV는 이를 galleries(회랑)로 번역해서 무언가 길쭉한 구조물로써 해석했다.

고대 번역본들을 확인해 보면, 칠십인역은 ἐν παραδρομαῖς라는 표현을 통해 무언가 '달린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흐르는 물이나 수로를 가리킬 수 있도록 번역했다. 테오도레투스의 『아가 주해』를 보면, 이를 "머리 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이 '달린다'라는 뉘앙스는 이 단어의 어근인 רהט가 히브리어의 רוץ(달리다)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아람어 רהט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6] 불가타는 canalibus, 즉 '수로' 내지는 '홈통'으로 번역하고 있다. 아람어 타르굼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5) J. R. 라이트, 『교부들의 성경 주해: 잠언·코헬렛·아가』 박영식, 배승록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12), 511.

6) G. 바르비에로, 『아가』, 596; M. H. Pope, *Song of Songs*, 630; M.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Lond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161;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87-288; T. 롱맨 III, 『아가』 236-237.

삭을 '묶은 것'을 언급하면서도 여기에 야곱이 구유로 물을 먹일 때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긴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묶는 길쭉한 것'과 '구유'의 의미를 둘 다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7] 미드라쉬 라바에서는 이 구절의 רהטים을 'runners' 즉,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며, '구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므리바의 '물줄기'와 연결시키기도 한다.[8] 즉 이 고대의 번역본들 및 주해들은 주로 '길쭉한 수로' 내지는 '길쭉한 홈통' 같은 번역을 선택해 길쭉한 머리카락에 쉽게 비유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창세기 및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구조물'의 의미와의 연결성을 놓지 않았다. 실제로, 족장 서사에 등장하는 רהטים을 '물 구유'라고 흔히 번역하지만,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수로'라고 볼 수도 있다.[9]

중세 유대 랍비인 라쉬(Rabbi. S. Yitzchaki)는 아가 7:5[6]하반에 대해 "전능하신 분의 이름이 머리카락(תלתלים)에 결속돼 있다"고 설명하며, 민수기 6:7에서 "그의 하나님의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10]고 한 것과 연결함으로써 רהטים을 '머리카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11] 라쉬는 더 나아가 רהטים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은 허리띠를 매는 데 사용하는 끈을 지칭한다"라고 설명한다.[12] 즉 그는 רהטים이 머리카락 내지는 기다란 끈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석한 것이다.

3. 현대 주석가들의 해석

רהטים이 히브리어 성서에서 대부분 '물 구유'라는 뜻으로 사용된 가운데, 단 한 번 나타나는 아가 7:5[6]의 '머리카락'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현대 주석가들은 고대 번역본들이 제안한 것과 같이 아람어 רהט와의 어원적 연관성 속에서 '물결'의 맥락에서 머리카락에 비유하는 것은 타

7) A. W. Litke, *Targum Song of Songs and Late Jewish Literary Aramaic: Language, Lexicon, Text, and Translation* (Leiden; Boston: Brill, 2019), 269.

8) H. Freedman and M. Simon, eds., *Midrash Rabbah: Esther and Song of Songs*, M. Simon, trans., 3rd ed. (London: Soncino Press, 1983), 288-289.

9)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257-258에서는 창세기 및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רהטים을 '수로'라고 번역하고 있다.

10) נזר אלהיו על־ראשו. 명사 נזר는 '왕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BDB, 634; *HALOT*, 684; *DCH* 5, 651.

11) Rashi, *The Megilloth and Rashi's Commentary with Linear Translation*, A. Schwartz and Y. Schwartz, trans. (New York: Hebrew Linear Classics, 1983), 136.

12) Ibid.

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바르비에로(G. Barbiero)는 "머리카락을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물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한 표상"이라는 견해를 표하고 있으며,[13] 바르텔레미(D. Barthélemy)는 현대 프랑스어에서 *ondulation*이라는 단어가 물결과 머릿결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든다.[14] 엑섬(J. C. Exum) 또한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시냇물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한다.[15]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머리카락'이라는 의미가 "어원보다는 맥락을 통해 도달한 의미"임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의미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16]

반면에 이러한 관행적 번역이 "이 절의 앞부분의 머리카락과 어떤 연결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주석가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17] 그에 따르면, '구유'라는 의미를 유지한다면 아가 7:5[6]하반을 "술람밋이 왕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18] 혹은 아가 1:17의 רהיטנו의 רהיט(서까래)를 רהט와 같은 단어로 간주하고 무언가 '나무'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한 뒤, 왕(מלך)을 רהטים에 매인 주어가 아니라 그 앞의 자주 천(ארגמן)에 연결된 속격(genitive)으로 해석하여, 왕의 자주 천이 רהטים에 매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일종의 베틀로써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19]

이러한 현대 해석들은 대부분 רהטים이 히브리어 성서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의미, 즉 '물 구유'라는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전제하는 가운데, 아가 7:5[6]의 맥락만을 통해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고대 번역본들 및 아람어와의 어원적 유사성에 기대어 '머리카락'과 '흐르는 물'과의 관련성 속에서 '머리카락'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혹은 철자

13) G. 바르비에로, 『아가』, 596.

14) D. Barthélemy,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vol. 5, OBO 50/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Fribourg: Academic Press, 2016), 917.

15) J. C. Exum, *Song of Songs*, 214.

16)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186. 참고로 A. Bloch and C. Bloch, *The Song of Song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204에서는 '물 구유'의 의미를 일차적 의미로 두면서 '머리카락'은 은유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17) P. W. T. Stoop-van Paridon, *The Song of Song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Hebrew Book שִׁיר הַשִּׁירִים*, ANESSup 17 (Louvain: Peeters, 2005), 384.

18) Ibid.

19) G. Gerleman, *Ruth. Das Hohelied*, BKAT 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5), 199-200; Y. Zakovitch, *Das Hohelied*, HTKAT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04), 248-249; 가렛은 '왕'을 여전히 6하반절의 주격으로 보는 가운데 이러한 논리에서 유추된 베틀의 의미만을 적용시킨다. D. 가렛, P. R. 하우스, 『아가 · 예레미야 애가』, WBC,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0), 357.

가 거의 비슷한 רהיט를 동일 단어로 간주하고 마소라의 성조 부호를 살짝 바꾸어 베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 때 이 구절의 רהטים은 현대 학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단어로, 그리고 '구유'라는 의미와는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회 출현 단어인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헬드 메소드'

아가 7:5[6]의 רהט가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가정할 때, 이 단어의 의미론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 '헬드 메소드'(The Held Method)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헬드 메소드'는 헬드(M. Held)라는 비교셈어학자가 우가릿 사전 편찬 작업에 활용하고자 만들었던 몇 가지 방법론적 원칙들을 그의 제자들이 정리하여 편찬해낸 것이다.

헬드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바로 다른 셈어족 언어와 어원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먼저 해당 언어 내적인 요소들 —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미들 — 을 통해 충분히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0] 즉, 성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이라면, 아람어나 아카드어와 비교하기 전에 먼저 성서 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헬드 메소드의 첫 번째 원칙은, "어원적 방식보다는 귀납적 방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21] 연구 초반이라면, "어원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게 좋다.[22] 헬드는 셈어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단어'와 '어원적으로 동일한 단어'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동사 עבר는 "건너다, 지나가다"의 뜻인데, 어원적으로 연결되는 아카드어 동사는 *ebēru*지만 이 단어는 강이나 수로나 바다를 건너는 데에만 해당하므로 이것이 히브리어 עבר의 의미론적 동의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아카드어 *etēqu*가 훨씬 다양하게 "건너다, 지나가다"의 뜻을 가지므로 히브리어 עבר의 의미론적 동

20) C. Cohen, "The Meaning of צלמות 'Darkness': A Study in Philological Method",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Eisenbraun, 1996), 289.

21) C. Cohen, "The 'Held Method' for Comparative Semitic Philology",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19 (1989), 10.

22) C. Cohen, "The Meaning of צלמות 'Darkness'", 289.

의어라고 할 수 있다.[23]

두 번째 원칙은, "서사시의 고풍스러운 언어와 제의 및 경제 텍스트의 언어 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상의 단어와 시적 언어 사이를 구분해서 연구해야 한다. 어원적 및 의미적으로 연결된 단어일지라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인지 아니면 시적 맥락에서만 쓰이는 단어인지에 따라 의미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24]

세 번째 원칙은, "시적 사용과 평행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행 구조에 놓인 단어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론적 연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25]

네 번째 원칙은, "방언 간 분포의 원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어떤 의미를 사전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텍스트 그 자체를 알고 다양한 버전들과 관용구에 친숙해져야 한다.[26]

다섯 번째 원칙은, "각 단어를 그 특정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록 어떤 두 단어가 어원적으로 연결된 단어일지라도, 하나는 기술적 용어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그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헬드는 스파이저(E. A. Speiser)가 창 30:20의 **הפעם יזבלני אישי**를 아카드어 *zubullâ zabālu*에 근거해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zubullû*는 그냥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예물'을 나타내는 기술적 용어이기 때문이다.[27]

여섯 번째 원칙은 "어원적으로 비교할 때에도 그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도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행 구조에서의 평행 용법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שׂר**(고관)와 아카드어 *šarru*(왕)는 의미상으로 완전히 다르고 어원적 연관성도 확실하지 않은데도 종종 연결되어 논의된다는 점을 비판한다.[28]

일곱 번째 원칙은, "비록 어원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일지라도,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론적 발전을 보인다"면, 이 두 단어의 연결성은 비록 그 논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확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동사 **לאך**(보내다)와 명사 **מלאכה**(일)는 아카드어 동사 *šapāru*와 명

23) C. Cohen, "The 'Held Method' for Comparative Semitic Philology", 10-11.
24) Ibid., 11.
25) Ibid., 12.
26) Ibid., 13.
27) Ibid., 14.
28) Ibid., 14-15.

사 *šipru*에 각각 해당한다. 이때 히브리어에서 '보내다'라는 뜻과 '일'이라는 뜻이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다의어라는 점은, 현대인들에게 그 논리가 이해되느냐의 여부는 상관없이, 아카드어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의미론적 발전이 확인되기 때문에 확실해진다.[29]

이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רהטים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유'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단어의 맥락적인 정보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는 '족장 서사' 맥락에 속하며 그 의미는 이견 없이 '구유'로 확정할 수 있지만, 아가서에서 이 단어는 '사랑시'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 속하며 그 의미는 불확실하다. '헬드 메소드'에 의하면 이 불확실한 단어 규정을 위해 바로 어근이 동일한 아람어 רהט로 넘어가면 안 된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어진 아가 7:5[6]의 맥락 안에서 해당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도출해 보는 것이다.

5. 아가 7:5[6]의 문학적 맥락

아가 7:5[6]의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까지가 6절이 속한 문학적 단위인지 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가운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이 아가 7:1-5[2-6]이 속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최소한의 한 단위에 속한다는 점이다. 아가 7:1-5[2-6]은 '와쯔프'라고 불리는 문학 양식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몸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은유나 직유를 통해 묘사하는 방식으로, 아가서의 다른 곳(4:1-7; 5:10-16; 6:4-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0]

다만 아가 7:1-5[2-6]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인지,[31] 아니면 6:13[7:1]-8:4,[32] 7:1[2]-8:4,[33] 6:11-7:6[7],[34] 6:4-7:9[10],[35] 6:4-7:10[11][36] 등의 더 큰 단위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견해들이 다르다. 더 나아가 가장 작은 단

29) Ibid., 17.
30) G. 바르비에로, 『아가』, 44-45;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196-197; J. C. Exum, *Song of Songs*, 20; M. V. Fox, *The Song of Songs*, 269-275.
31) G. Gerleman, *Ruth. Das Hohelied*, 195; O. Keel,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Frederick J. G.,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226.
32)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180.
33) D. 가렛, P. R. 하우스, 『아가·예레미야 애가』, 354-356, 358-360.
34) M. V. Fox, *The Song of Songs*, 154.
35) J. C. Exum, *Song of Songs*, 211-212.
36) G. 바르비에로, 『아가』, 492-497.

위로서의 7:1-5[2-6]에 이 묘사를 이끄는 도입부로써 6:13[7:1]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도 하며,[37] 7:1-5[2-6]의 끝나는 지점이 7:6[7]이라고 보기도 한다.[38]

필자는 6:13[7:1]-7:5[6]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단위라고 본다. 6:11-12에서 6:13[7:1]로 전환될 때, 비록 6:11-12가 여성의 노래인지 남성의 노래인지는 불분명할지라도 적어도 일인칭 단수 주어에서 일인칭 복수 주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39] 6:11이 아닌 6:13[7:1]을 그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6:11-12가 과거 시제로서 완료형을 쓰며 회상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면, 6:13[7:1]부터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40] 그리고 6:13[7:1]이 7:1-5[2-6]을 이끄는 도입부 역할을 하면서 7:1-5[2-6]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묘사의 틀을 만들어주는데, 이는 아가서에 나타나는 다른 와쯔프의 도입 방식과 유사하다.[41]

이 와쯔프의 결론은 7:5[6]하반, 즉 왕이 그 **רהטים**에 매이었다는 서술로써 맺어진다. 왜냐하면 7:7[8]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지시대명사인 **זאת**로 7:6[7]과의 연결성을 매개로 하고 있어 7:6[7]은 7:1-5[2-6]의 결론이라기보다는 7:7[8]에서 시작하는 또 다른 묘사의 도입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6-9[7-10]에서는 와쯔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데, '사랑'(7:6[7])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든지, 여성의 신체를 비유하는 '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를 '움켜잡는'(7:7[8]) 등 훨씬 내밀하고 촉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6:13-7:5[7:1-6]의 주어가 일인칭 복수로서 하나의 그룹이 여성의 신체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7:6-9[7-10]의 주어는 다시 일인칭 단수로 남자 연인이 여자 연인의 신체를 더욱 친밀한 언어로 노래하는 것으로 보인다.[42]

아가 6:13-7:5[7:1-6]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단위, 연, 혹은 시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술람밋이라고 불리는 여자의 춤을 보기를 원하면서 시작된다. 6:13[7:1]을 여는 동사 **שובי**는 '돌아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43] 한 장소에

37) Y. Zakovitch, *Das Hohelied*, 241; G. 바르비에로, 『아가』, 557-559;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180, 185.

38) M. V. Fox, *The Song of Songs*, 154; Y. Zakovitch, *Das Hohelied*, 242.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277-278.

39) G. 바르비에로, 『아가』, 557.

40)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01-203.

41) M. V. Fox, *The Song of Songs*, 155.

42)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03; 엑섬 또한 6:13-7:5[7:1-6]의 여성 신체 묘사가 다른 묘사들보다 훨씬 '절제된' 모드로 쓰여졌다는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다. J. C. Exum, *Song of Songs*, 232.

43) G. Gerleman, *Ruth. Das Hohelied*, 188; M. V. Fox, *The Song of Songs*, 157; O. Keel, *The Song of Songs*, 228; J. C. Exum, *Song of Songs*, 225; D. 가렛, P. R. 하우스, 『아가·예레미야 애가』,

서 몸을 돌리는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며(왕상 21:20), 바퀴가 돌아가는 움직임 같은 회전 동작을 나타내기도 한다(잠 20:26).[44] 따라서 '춤'에서의 도는 동작 혹은 원형을 그리는 동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6:13[7:1]에 바로 이어서 '춤'이라는 단어 מחלה가 나타난다는 점, 7:1-5[2-6]의 와쯔프가 다른 와쯔프와는 다르게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가 아닌 발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순서를 따라 전체 몸을 묘사함으로써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점, '발'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훨씬 더 자주 쓰이는 רגל이 아닌 '발디딤 동작'을 강조하는 단어인 פעם을 썼다는 점(7:1[2]상), 허벅지의 '곡선'을 나타내는 단어 חמוק이 허벅지와 다리가 만들어 내는 선회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라는 점(7:1[2]하),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인 שער를 쓰지 않고[45] '흔들거린다'는 뉘앙스를 가진 רלה라는 단어를 통해 머리카락을 표현했다는 점(7:5[6]상)을 볼 때, 7:1-5[2-6]의 묘사는 춤을 추고 있는 슐람밋을 그리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13[7:1]의 שובי는 '돌아오라' 보다는 춤을 추듯 빙글 돌기를 촉구하는 단어라고 보는 게 낫다.[46] 마지막으로 6:13[7:1]에서 שובי 단어의 반복과 שולמית라는 단어와의 병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음 š, 모음 u와 i의 리드미컬한 반복은 이 노래가 춤에 어울리는 퍼포먼스적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47]

이와 같이 6:13[7:1]이 한 무리의 사람이 슐람밋의 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냄으로써 1-5[2-6]절의 묘사의 배경을 제공한다면, 이어지는 1-5[2-6]절은 여자의 신체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 은유와 직유를 사용해 묘사하고 있다. 1[2]상반절에서는 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1[2]하반절에서는 허벅지가 그리는 곡선을 예술적 장신구에 묘사한다. 2[3]상반절에서는 여자의 배꼽을 포도주잔에 비유해서 그 안에 담긴 포도주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하고, 2[3]하반절에서는 여자의 배를 연꽃으로 장식한 거대한 곡물 더미에 비유해 그 풍성함을 찬양한다.[48] 3[4]

348;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274-275.

44) W. L. Holladay, *The Root Šûb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Usages in Covenantal Contexts* (Leiden: Brill, 2024), 53; G. 바르비에로, 『아가』, 560-561; A. Graupner and H. J. Fabry, "שוב", *TDOT* 14, 478;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27-228.

45) 아 4:1에서는 שער를 썼음을 참조하라.

46) G. 바르비에로, 『아가』, 564, 567, 572, 575, 594-595; Y. Zakovitch, *Das Hohelied*, 241, 244;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06-207; 그 외에도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180-181; P. W. T. Stoop-van Paridon, *The Song of Songs*, 356도 춤추는 상황에서 도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7) G. 바르비에로, 『아가』, 559;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07.

48) 보통 '백합'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שושן이 연꽃을 나타내는 이집트어 *sšn*에서 온 단어라는 주장이 있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히브리어 שושן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주로 성전

절에서는 여자의 두 유방을 쌍둥이 아기 노루에 비유한다. 이 구절은 "너의 두 유방은 연꽃을 먹는 쌍둥이 아기 노루와 같다"[49]는 아가 4:5의 좀 더 긴 버전을 짧게 축약한 것인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함을 통해서 7:3[4]이 연꽃까지 포함한 그림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50] 아가 7:4[5]는 여자의 목을 상아 망대에, 눈을 인공 연못에, 코를 레바논의 망대에 비유하고, 마지막으로 5[6]절에서 여자의 머리가 갈멜산에, 머리카락이 귀한 자주 천에 비유되며, 왕이 그 רהטים에 매이었다는 구절로 묘사는 마무리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רהטים은 여자의 신체에 대한 묘사에 '왕'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전체 묘사의 결론을 내고 있다. 여기에서 '매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אסור ב는 내러티브, 역사적 서술, 시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 73번 등장하며, 누군가(사람이나 손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무언가(말, 소, 나귀, 병거 등)를 묶거나, 고랑을 채우거나, 가두는 등의 의미로 쓰인다. 비유적으로는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의 기둥머리 장식이나 제의용 잔의 장식으로써 언급되는데, 고고학적으로 백합 모양이 아닌 연꽃 모양의 컵이나 기둥머리를 찾을 수 있다. (2) 칠십인역은 שושן을 κρίνον으로 번역하는데, 헤로도토스가 같은 단어를 '연꽃'을 지칭하며 사용한 예가 있다. (3) 연꽃은 레반트와 이집트에서 생명력과 재생을 나타내는 주요한 상징으로써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성전 기둥이나 제의용 잔을 연꽃으로 장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O. Keel, *The Song of Songs*, 78-79; S. Schroer, "Lotos," M. Görg and B. Lang, eds., *Neues Bibel-Lexikon*, vol. 2 (Zurich: Benziger, 1995), 670; T. Staubli, "Love Poetry from the House of the Mother: Arguments for a Literal Understanding of Song of Songs and against its Neo-Allegorical Interpretation", A. Schellenberg and L. Schwienhorst-Schönberger, eds., *Interpreting the Song of Songs: Literal or Allegorical?* (Leuven; Paris; Bristol: Peeters, 2016), 84-87; M. H. Pope, *Song of Songs*, 368; H. Schmoldt, "שׁוּשַׁן," *TDOT* 14, 553-555;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33; 또한 보통 '밀단'으로 번역되는 ערמת חטים에서 ערמה는 거대한 곡식을 묶어 놓은 단이라기보다는 쌓아 놓은 무더기나 언덕 모양의 더미를 나타내며 ("עֲרֵמָה", *HALOT*, 887a; "עֲרֵמָה", *Ges*[18] 4, 1016a; "עֲרֵמָה", *DCH* 6, 564b; A. M. Harman, "ערם", *NIDOTTE* 3, 538-539), 양이 '많음'을 나타내기에 '풍성함'이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49) 이 구절의 '연꽃'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앞의 각주 48을 참조하라.

50)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필자는 고대 근동에 흔히 존재하던 도상학적 모티프, 즉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를 두고 양쪽에 염소나 노루 등 염소과의 동물이 그 이파리를 먹는 모습을 그린 이미지들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킬(O. Keel)의 해석을 지지한다. 이 모티프는 후기 청동기 및 철기 시대에 가운데의 생명의 나무가 연꽃으로 대체되거나 연꽃과 결합하여 등장할 수 있었으며, 신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인의 가슴을 연꽃을 먹는 노루 두 마리에 빗대는 것은, 철기 시대 고대 근동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이 이미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즉 생명력과 풍성함의 의미를 여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다. O. Keel, *The Song of Songs*, 151; O. Keel, *Deine Blicke sind Tauben: Zur Metaphorik des Hohen Liede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1984), 81-85; 다음도 참고하라.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35-238; T. Staubli, "Love Poetry from the House of the Mother", 84-85.

(예: 왕상 20:14), ‘서원하다’(예: 민 30:8-12) 같은 의미로도 쓰였다. 이 동사는 전치사 ב와 함께 히브리어 성서에 총 28번 등장하며, 이 전치사 뒤에는 여러 종류의 묶는 도구들(수갑이나 사슬을 포함해 식물,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줄이나 끈, 예: 삿 15:3; 왕하 25:7), 감옥(예: 창 40:5), 수레(예: 삼상 6:7에서 수레에 소를 연결시킬 경우), 엉덩이/허리(예: 욥 12:18), 혹은 지명(예: 왕하 23:33)이 올 수 있다. 특별히 시가 문학의 경우, “사슬/족쇄에 결박하다”(אסר בזקים) 라는 표현을 통해, 비유적으로 ‘패배하다’ 혹은 ‘고난에 처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예: 시 149:8상; 욥 36:8상). רהטים을 무엇으로 해석하든, ‘왕이 무언가에 매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하다. 1-5[2-6]절을 통해 내내 묘사된 슐람밋의 매력에 빠진 왕이 그녀의 포로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피셔(S. Fischer)나 베르데(D. Verde)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은유는 “사랑은 전쟁이다” 라는 관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왕을 사랑의 포로로 묘사하고 있다.[51]

6. רהטים의 의미 범주 규정

앞서 ‘헬드 메소드’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 어원적인 연결보다 문맥을 통해 그 의미적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맥에서 רהטים의 의미 범주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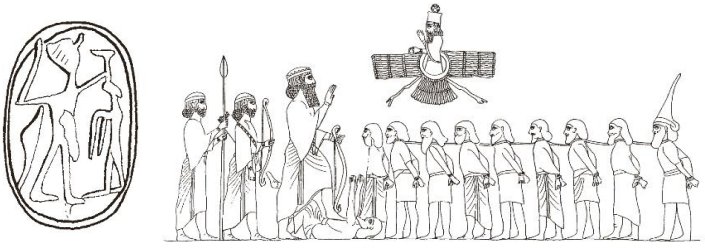
먼저, אסר ב가 시가 문학 장르에서 사슬이나 족쇄 같은 것에 결박되어 ‘패배하다’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가 문학인 아가서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논의한 아가 6:13-7:5[7:1-6]의 전반적인 맥락에도 잘 맞는다. 왕이 슐람밋의 매력에 빠져 스스로 그녀의 포로로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רהטים의 의미 범주는 일종의 줄이나 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רהטים 앞에 정관사가 있고 5[6]상반절에서 ‘머리카락’이 언급된 바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왕이 줄이나 사슬 같은 데에 결박된 그림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51) S. Fischer, “Mental Mapping in the Admiration Song of Songs 7:2−7”, *HTS Theological Studies* 75 (2019), 6; D. Verde, “War-Games in the Song of Songs: A Reading of Song 2, 4 in Light of Cognitive Linguistic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0 (2016), 193-194.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승리자인 왕이 패배한 적군을 결박하여 치려고 하는 이미지들에 상응하는 심상이다(<그림 1>). 이러한 그림에서는 왕이 승리자이고 적들은 포박돼 있지만, 아가에서는 이 은유를 뒤집어서 왕을 패배한 포로로써 나타내고 있다.[52] 이러한 도상학적 증거는 아가 7:5[6]하반이 포로들을 '결박된 상태'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 전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왕과 패배한 적을 보여주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들
왼쪽[53]: 인장, 도르(Dor), 1150-1100 BCE
오른쪽: 암각 부조, 베히스툰(Behistun), 520-518 BCE



출처: S. Schroer, *Die Eisenzeit bis zum Beginn der achämenidischen Herrschaft*, No. 1031(왼쪽), 1973(오른쪽)

게다가 폭스(M. V. Fox)나 킬(O. Keel)이 주장하듯,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 연인을 붙잡는 이미지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신왕국 시대 이집트 사랑시에서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녀는 나를 잡는다"라든지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물이 되어 나를 사로잡는다"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다.[54] 특별히 후자의 경우, '머리카락'의 의미로 쓰인 이집트어 *šnw*가 '그물'이라는 뜻도 가진 언어유희에 기인한다.[55]

따라서 비록 어원적으로는 רהט가 '머리카락'의 의미를 지녔음을 증명할 수 없지만, 맥락적 증거 및 고대 근동의 문학적 · 시각적 심상을 통해 머리카락으로 연인을 매혹시키는 이미지는 고대 근동이나 레반트에서 쉽게 이해되고 통용되는 이미지였음을 알 수 있다.

---

52) 이에 대해서는 Y.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246도 참조하라.
53) 이 간략화된 도상에서는 포로의 손을 묶는 끈이 생략되어 있다.
54)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288; M. V. Fox, *The Song of Songs*, 9, 73; O. Keel, *Song of Songs*, 238.
55) M. V. Fox, *The Song of Songs*, 73.

반대로, ב אסר라는 표현이 '어떤 공간에 가두다'를 의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물 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록 전치사 ב까지 포함하여 동사 אסר가 '가두다'라는 의미로 시가 문학에서 쓰이거나 비유적으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אסר가 '가두다'라는 의미로 시가 문학에서 쓰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예: 시 146:7). '갇히다'라는 의미로 아가 7:5[6]의 אסור가 쓰인 것이라면, 왕은 여러 구유통'들'에 갇힌 것이며, 이때 정관사의 존재는 5[6]상반절의 '머리카락'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언급되었던 여자의 모든 매력을 '액체'의 이미지로 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가 6:13-7:5[7:1-6]에서 여자의 신체를 묘사하는 데 쓰인 심상들에는 '액체'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2[3]절에 등장하는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와, 4[5]절의 헤스본의 '호수'는 풍성한 '음료'의 이미지를 여자에게 부과한다. 5[6]상반절에서 여자의 머리를 비유하는 '갈멜'은 지역으로서도 물이 넉넉하게 제공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며,[56] 과수원이나 정원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로서도[57] 넉넉한 물의 이미지를 수반한다. 게다가 아가서 및 그 외 히브리어 성서에서 '물'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연관돼 있으며(예: 아 4:12, 15; 잠 5:15-18), 비슷한 관념을 이집트 사랑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58] 여성의 몸은 종종 이러한 액체들을 담는 '용기'로서 언급되기도 하는데 (예: 아 7:2[3]),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와쯔프에 이러한 '물 구유'가 등장하는 것은 몸을 '액체를 담는 그릇'으로 보는 고대 근동의 관념과 궤를 같이한다.[59]

그렇다면 아가 7:5[6]하반을 '왕이 그 물 구유들에 갇혔네'라고 해석할 때, 이 '구유'란 1-5[2-6]절에서 언급된 슐람밋의 모든 매력 요소들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전체로써의 여성의 매력에 왕이 빠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자 연인은 '왕'에게 비유되는 동시에 구유통으로부터 물을 마시는 '동물'로써 이중으로 비유되는 것이며, 남자 연인을 여자 연인으로부터 물이나 꼴을 얻는 '동물'로서 보는 이미지는 아가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60]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해석, 즉 רהט를 머리카락으로 보는 해석은

---

56) H. Thompson, "Carmel, Mount (Place)", *ABD* 1, 874-875.

57) M. J. Mulder, "כַּרְמֶל", *TDOT* 7, 325-330; D. J. A. Clines, "כַּרְמֶל I–IV", *DCH* 4, 462.

58) M. V. Fox, *The Song of Songs*, 26.

59) S. Schroer and S. Kipfer, "Der Körper als Gefäß: Eine Studie zur visuellen Anthropologie des Alten Orients", *Lectio difficilior* 1 (2015), 3-14.

60) 아 1:8; 2:16; 4:5; 6:2; 7:3[4]를 참조하라. 또한 아가에서 사용된 연인들 간의 '먹는다'라는 심상이 지닌 성적 심상에 대해서는 강승일, "아가에 등장하는 중의적 표현들(double entendres)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151 (2010), 14-15, 17-20, 22-23, 25를 참조하라.

비록 어원적 근거는 없지만 맥락적 증거 및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이미지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헬드 메소드'에 의하면 어원적 증거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해석, 즉 왕이 여자의 매력이라는 '물 구유'에 갇혀있다고 보는 해석은, 이 단어가 가진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다른 용례의 해석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물에 비유하거나 연인들 간의 사이를 동물이 꼴이나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는 히브리어 성서 및 고대 근동의 심상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정확히 '물 마시는 구유'에 남자 연인이 빠지는 것으로 여자의 매력을 노래하는 다른 사례를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시인이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시인의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랑시를 노래할 때 '구유'와 '머리카락' 두 가지 의미로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머리카락'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대 근동의 심상에서 여자 연인의 머리카락에 남자 연인이 포로처럼 매이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רהט라는 단어의 '머리카락'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 단 한 번 쓰인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면, 이는 아가서가 각종 호화용품과 관련해서 하팍스 레고메나가 다양하게 쓰인 책[61]이라는 점에 상응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רהט가 '구유'를 가리키는 단어라면, 머리카락과 관련된 특정 고급용품 혹은 머리 모양을 일컫는 기술적 용어로서 רהט라는 단어가 사랑시 문학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아가의 사랑시들을 향유하던 계층이 어느 정도 엘리트 계층이었다면 그러한 기술적 용어에 더 해박했을 것이며, 비록 직접 목축업에 종사하지는 않더라도 고대 삶의 생활 근간으로서 그리고 족장 전승을 통해서 '물 구유'로서의 의미 또한 확실하게 자리잡혀 있었을 것이다. 엘리트 계층이 아닌 경우에라도, 문맥상 '머리카락'으로 파악할 근거는 충분하며, 동시에 '물 구유'의 의미는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듣던 청자들은 רהטי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맥락을 통해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왕이 묶인 이미지를 일차적으로 떠올리는 동시에, 일상에서 접하던 '구유'의 이미지 또한 추가적으로 떠올려 여성의 매력을 물에 빗댄 심상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רהט의 두 가지 의미, 즉 '구유'의 의미와 '머리카락'의 의미는 동

61) G. 바르비에로, 『아가』, 37-38; J. C. Exum, *Song of Songs*, 29;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7.

음이의적일까 아니면 의미적으로 연결된 다의어라고 볼 수 있을까? 헬드에 의하면, 셈어족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사전적으로 구분할 때에는 "하나의 어근이 의미상 명확하고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때 이들은 '동음이의'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어원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다른 어근이 원래 어근과 동일한 두 의미로 평행하게 의미 발전을 보일 때만이, 그 두 용어가 다의어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선례)"가 된다.[62] 이때 현대인들에게 그 서로 다른 의미들의 연결성이 이해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두 개 이상의 언어에서 어근 상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단어들이 동일하게 a의 의미와 b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대 문화에서 '연결된 뜻'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필자는 안타깝게도 רהט의 '구유'와 '머리카락'의 의미가 다의어적으로 연결될 만한 '다른 어근을 가진 단어가 동일한 의미론적 발전을 거친 선례'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다른 발견이 있지 않은 한, 이 '머리카락'과 '구유'의 뜻은 동음이의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어 성서에서 רהטים이라는 단어는 '물 구유'와 '머리카락',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둘은 현재까지는 동음이의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아가 7:5[6]의 시인은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더 일반적인 단어인 שׂער 같은 단어가 아닌 רהטים을 사용함으로써 '남자 연인이 왕으로서 여자의 머리카락에 매인 포로가 돼 있는' 심상과 '남자 연인이 동물로써 여자의 매력이 가득 담긴 물 구유에 푹 빠져 벗어날 수 없는' 심상을 둘 다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고대의 일부 청중들은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7. 결론

이 논문은 아가 7:5[6]에 등장하는 רהט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일관적으로 물 구유를 의미하지만, 아가에서는 그 의미를 적용하기가 맥락상 어색하다. 고대의 번역들은 '물'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며 '흐르는 시내'나 '수로'와 같이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구유'로 해석해 다른 족장 서사들과 연결시키는 주해들도 발견할 수 있

62) C. Cohen, "New Directions in Modern Biblical Hebrew Lexicography", C. Cohen, et al., eds., *Birkat Shalom: Studies in the Bibl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nd Postbiblical Judaism Presented to Shalom M. Paul*, vol. 1 (Winona Lake: Eisenbrauns, 2008), 441-443.

다. 현대에 와서는 주로 고대 번역본에서 찾을 수 있는 '흐르는 물'과 '머리카락'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아람어 רהט(달리다)와의 어원적 유사성에 근거해 '머리카락'으로 해석한다. 종종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거나 '맥락에만 의존한 번역'임을 밝히는 사례들이 있기도 하다. 이 단어를 그대로 '구유'로 해석해서 5[6]하반절의 의미를 '술람밋이 왕의 갈증을 풀어준다'고 해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 논문에서 소개한 '헬드 메소드'에 의하면 어떤 한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때 어원적 연관성이 맥락적 의미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서로 어원이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의미상의 연결이 전혀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아람어 רהט와의 연관성은 실제로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후대 해석자들이 유추해 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어를 종종 사용하는 아가서의 특성상 아람어 단어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아람어로도 의미가 분명하게 본문의 맥락에 맞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아가 6:13-7:5[7:1-6]의 본문 분석에 따르면 5[6]하반절은 줄이나 끈 같은 무언가 묶을 수 있는 것으로 왕을 묶는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앞인 5[6]상반절에서 '머리카락'을 언급하기 때문에 맥락상 '머리카락'의 의미론적 범주를 지닌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해석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자 연인을 포로로 만든다'는 고대 근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념에 부합하며, 고대 근동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승리한 왕과 패해서 묶여있는 포로'의 시각적 전통 안에서 이를 역전시킨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רהטים을 '머리카락'이라고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유'라는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머리카락'과 관련된 의미의 רהטים이 성서 전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하팍스 레고메논으로 아가의 호화로운 맥락 속에서 사용된 기술적 용어인 데 반해, רהטים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라는 의미로 더 다가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의 청중들은 맥락상 일차적으로는 '머리카락'으로 해석하면서도, 구유와의 연관성 속에서 남자 연인이 술람밋의 매력에 푹 빠져 마치 구유에서 갈증을 채우는 동물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의 시인은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다른 대표적인 단어들을 쓰지 않고 굳이 רהטים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중의적으로 이 둘 다

의 이미지를 의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중의적 표현들을 통해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63] 그렇게 본다면, 아가 6:13-7:5[7:1-6]에서 여자의 신체를 묘사함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왕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매여 사랑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러한 '패배'는 왕이 기쁨으로 바라는 것이며 또한 마치 동물이 구유에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듯 술람밋의 여러 매력들은 왕을 살아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림일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구유, 머리카락, 아가, 헬드 메소드, 고대 근동 도상학.
Trough, Tresses, Song of Solomon, Held Metho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투고 일자: 2025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8월 29일)

63) 강승일, "아가에 등장하는 중의적 표현들".

<참고문헌>(References)

가렛, D., 하우스, P. R.,『아가 · 예레미야 애가』, Word Biblical Commentary,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0.

강승일, "아가에 등장하는 중의적 표현들(double entendres)에 대한 연구",「신학사상」151 (2010), 9-34.

김구원,『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라이트, J. R.,『교부들의 성경 주해: 잠언·코헬렛·아가』, 박영식, 배승록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12.

롱맨 III, T.,『아가』, 권대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바르비에로, G.,『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역, 서울: 가톨릭, 2014.

유연희, "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번역어 찾기 —",「성경원문연구」50 (2022. 10.), 37-45.

Barthélemy, D.,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vol. 5, OBO 50/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Fribourg: Academic Press, 2016.

Bloch, A., and Bloch, C., *The Song of Song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Clines, 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11.

Clines, D. J. A., ed., "כַּרְמֶל I–IV",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11.

Clines, D. J. A., ed., "עֲרָמָה",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11.

Cohen, C., "New Directions in Modern Biblical Hebrew Lexicography", C. Cohen, et al. eds., *Birkat Shalom: Studies in the Bibl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nd Postbiblical Judaism Presented to Shalom M. Paul*, vol. 1, Winona Lake: Eisenbrauns, 2008, 441-473.

Cohen, C., "The 'Held Method' for Comparative Semitic Philology",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19 (1989), 9-23.

Cohen, C., "The Meaning of צלמות 'Darkness': A Study in Philological Method",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Eisenbraun, 1996, 287-309.

Donner, H., ed.,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th ed., vol. 4., Berlin; Heidelberg; New York: Springer-Verlag, 2008.

Exum, J. C., *Song of Song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Fischer, S., “Mental Mapping in the Admiration Song of Songs 7:2-7”, *HTS Theological Studies* 75 (2019), 1-7.

Fox, M. V.,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Lond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Freedman, H. and Simon, M., eds., *Esther; Song of Songs. Midrash Rabbah*, vol. 9. M. Simon trans., 3rd ed., London; New York: Soncino Press, 1983.

Gerleman, G., *Ruth. Das Hohelied*, BKAT 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5.

Graupner, A. and Fabry, H. J., “שׁוּב”, *TDOT* 14, 461-522.

Harman, A. M., “ערם”, W.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3.,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97.

Holladay, W. L., *The Root Šub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Usages in Covenantal Contexts*, Leiden: Brill, 2024.

Keel, O., *Deine Blicke sind Tauben: Zur Metaphorik des Hohen Liede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1984.

Keel, O.,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J. G. Frederick,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Kim, Y., *Images of Anonymous Women: A Semiotic Approach to Image-Text Relations in Interpretations of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OBO, Leuven: Peeters, forthcoming.

Koehler, L., et al., “עֶרְמָה”, trans. and 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4, Leiden: Brill, 1999.

Litke, A. W., *Targum Song of Songs and Late Jewish Literary Aramaic: Language, Lexicon, Text, and Translation*, Leiden; Boston: Brill, 2019.

Mulder, M. J., “כַּרְמֶל”, *TDOT* 7, 325-336.

Murphy, R. E.,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0.

Pope, M. H.,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7.

Rashi, *The Megilloth and Rashi’s Commentary with Linear Translation*, A. Schwartz and Y. Schwartz, trans., New York: Hebrew Linear Classics, 1983.

Schmoldt, H., “שׁוֹשַׁן”, *TDOT* 14, 552-555.

Schroer, S. and Kipfer, S., “Der Körper als Gefäß: Eine Studie zur visuellen Anthropologie des Alten Orients”, *Lectio difficilior* 1 (2015), 1-26.

Schroer, S., *Die Eisenzeit bis zum Beginn der achämenidischen Herrschaft*. Vol 4 of *Die Ikonographie Palästinas/Israels und der Alte Orient: Eine Religionsgeschichte in Bildern*, Basel: Schwabe, 2018.

Schroer, S., "Lotos", M. Görg, and B. Lang, eds., *Neues Bibel-Lexikon, vol* 2, Zurich: Benziger, 1995.

Staubli, T., "Love Poetry from the House of the Mother: Arguments for a Literal Understanding of Song of Songs and against its Neo-Allegorical Interpretation", A. Schellenberg and L. Schwienhorst-Schönberger, eds., *Interpreting the Song of Songs: Literal or Allegorical*, Biblical Tools and Studies 26, Leuven; Paris; Bristol: Peeters, 2016, 79-102.

Stoop-van Paridon, P. W. T., *The Song of Song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Hebrew Book שיר השירים*, ANESSup 17, Louvain: Peeters, 2005.

Thompson, H. O., "Carmel, Mount (Place)", *ABD* 1 (1992), 874-875.

Verde, D., "War-Games in the Song of Songs: A Reading of Song 2, 4 in Light of Cognitive Linguistic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0 (2016), 185-197.

Zakovitch, Y., *Das Hohelied*, HTKAT,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04.

<Abstract>

Water Troughs and Tresses:
The Double Meaning of רהטים in Song of Solomon 7:5[6]

Yeseul Kim
(Yonsei University)

The word רהטים in Song of Solomon 7:5[6] has long been recognized as enigmatic. While this term unambiguously denotes ‘water troughs’ elsewhere in the Hebrew Bible, the meaning ‘trough’ appears contextually inappropriate in Sol 7:5[6]. This ambiguity is also observable in ancient translations, and ancient and medieval commentators offer no unified interpretation. Some modern commentators explicitly express the uncertainty of the word, while a few argue for the meaning ‘troughs’. Most modern commentators interpret the word as ‘tresses’, based on the Aramaic cognate רהט meaning ‘to run’, building a semantic chain of ‘running/water → waves → wavy hair’.

This study employs the Held Method to determine the semantic range of this word. The Held Method represents methodological principles established by Moshe Held for comparative Semitic linguistics and later compiled by his students. Its central principle is that contextual meaning must be thoroughly examined before making etymological comparisons with other Semitic languages. Applying this principle to examine the context of רהטים in Sol 7:5[6] reveals that the meaning ‘tresses’ can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of an etymological comparison with Aramaic רהט. Furthermore,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confirms that the ‘tresses’ interpretation fits well with the visualization of the ‘victorious king and defeated captive’ motif employed in 7:5[6]. This suggests that רהטים as ‘tresses’ stands in a homonymous relationship with רהטים as ‘water troughs’. If ‘water troughs’ was the more common meaning, then ‘tresses’ may have functioned as a technical term referring to specific hairstyles or hair ornaments in the luxurious context of the Song of Solomon.

From this perspective, interpreting רהט in Sol 7:5[6] as ‘water trough’ also remains viable. If ‘water troughs’ was everyday terminology while ‘tresses’ was a technical term for a luxurious hairdo, audiences of this love song, when it was

first circulated, may have evoked both the contextually appropriate meaning of ‘tresses’ and the more familiar meaning of ‘water troughs’. The comparison of female sexuality to liquids appears frequently in the Hebrew Bible, and the metaphor of the female body as a liquid-containing vessel is a visual trope found throughout the ancient Near East. This reading would allow for interpreting the woman’s attractions described in Sol 7:1-5a[2-6a] as being compared to ‘water troughs’ in which the king becomes captivated and quenches his thirst.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רהטים in Sol 7:5[6] could be understood by the early singers, performers, and audiences of this song primarily as ‘tresses’ while simultaneously accepting a more evocative interpretation as ‘water troughs’ in a double sense.